

김정덕/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소장

올해년! 세계수준의 연구소를 향하여

올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자 정보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희망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94년은 세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큰 변혁이 있었던 한해였다.

지금 지구촌은 WTO체제가 새롭게 출범하고 국가간의 합리적 경쟁을 강조하던 국제화시대에서 전 세계의 동참과 협력 또한 크게 요구되는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시대의 필연적인 대조류라고 생각한다.

이미 시내, 시외 및 국외전화의 구분이 없어져 가고 있으며 선진국 및 일부 아시아국가는 한 국가당 외국 TV채널의 수가 평균 60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각기 다른 대학간에 대화면의 멀티미디어 화상을 통하여 어느 유명교수의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공부하는 상호학점 인정제가 시행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실현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도 '95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방대한 정

부조직을 효율적, 효과적인 기업형으로 개편하고 정부 각료들도 세계화 추진에 적합한 인물로 조각하는 등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화의 중점목표는 과학기술력 증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경쟁전략인 동시에 내부의 기초를 보다 건설하게 다듬는 새로운 개혁 방향이다.

또한 환경 오염방지 등 세계의 문제는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세계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화의 전개와 함께 최근 전자 정보통신 분야도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기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컴퓨터, 통신, A/V, 방송기술이 융합함으로써 미디어의 통합화, 일체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미래 유망분야로서 각광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도 이들 기술들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융합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술추세에 대

응하고 2000년 3조 5,000억 달러의 거대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 가전분야의 업체들간에는 상호 관련기술을 공동 이용하기 위한 기술 제휴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자정보 기술개발 수준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세계화를 적극 실천해 나아갈 것이다.

연구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의 질적수준, 기술인력의 전문성, 연구장비, 전소원의 의식수준, 연구관리제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소 내외부적인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첫째, 세계화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논리이며 원칙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

약한 국내 중소기업계가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취약기술 및 핵심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애로기술 타게 담당관제(IDP)를 비롯 중소기업형 주문형반도체 설계 센터 및 기술심화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다.

금년에는 중소기업계에서 생산하는 전자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자부품 신뢰성 시험 센터, 기술개발촉진과 사업화를 위한 산업 기술 협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아갈 것이다.

둘째, 국제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하나의 완성된 기술개발을 위해서 무엇보다 취약기술을 보완하고 나아가서 국제적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및 중국, 러시아, 호주 등 정부 및 민간기업의 기술자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선 공동연구의 협상,

절차 및 방법, 연구결과의 사용방법, 과정 및 결과 평가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동연구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기술개발의 질적수준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연구원에게는 매력적인 연구소가 되어야 하며 연구원들을 계속적으로 동기화하여 연구원 개개인의 기술개발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원 개인별 성과급제도, 연봉제 도입 등 보수체계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서 연구원의 능력과 연구의 질을 극대화 시킬 것이다.

넷째, 연구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연구평가에 있어 형식성과 비합리성이 있다면 정당한 실적평가에 기초한 유인체제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일시적 사후평가를 과정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의 노하우와 공정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술개발 정보 수집체계를 혁신시킬 것이다.

기술개발 과정에서 관련정보의 신속, 정확한 파악은 기술개발 선정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성공적인 기술개발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정보 기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초청 가능한 해외 기술인력, 재외 한국인 기술자의 소재는 물론 연구결과의 정보화와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세계화를 위한 하부구조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94년 1년간 연구소 특허 총출원건수는 105건을 기록, 연간 출원건수로는 국내 정부출연 연구소중 3위를 차지하였으며 1인당 특허출원 건수로는 1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는 세계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선진각국에도 국내의 연구소중 최다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 나아갈 것이다.



도약의 1995년을!

김정식/ 본회 비상근 부회장
대덕전자(주) 사장

금년은 전자산업의 성장주기로 볼때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된다. 1970년에서 1980년까지는 가전을 중심으로 고속성장을 이룬 반면 1980년대에는 통신 및 정보기산업이 전자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여 왔다.

1988년이후 거의 5년간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조정기랄까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고개를 쳐든 전자산업은 1995년도를 기점으로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찬스라고는 보지만 주위 여건은 도약의 발목을 잡는 난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이 예전과는 달리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미 우여곡절 끝에 금년부터 발족되는 WTO가입 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이행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내시장 개방과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하는 무한경쟁의 벽을 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어서 구체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불력화와 기술보호주의의 확산은 우리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생산기지로 탈바꿈한 동남아 국가들의 전자산업 육성 정책의 가시화는 중저가제품 시장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별한 기술력도 자원조차 부족한가 하면 자본마저 충분하지 못한 우리가 세계시장을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을 기술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

투자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사람을 키우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2000년대를 준비하고 미래의 전자산업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 협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기업의 중요전략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비싼 제품이 고부가가치 상품이 아니다. 기술과 품질에서 상대비교우위가 아닌 절대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OEM 등으로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이름을 붙여서 팔지 못할 상품은 어떤 방법으로도 팔리지 않

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제력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가적 비중을 보더라도 우리는 내부 기술축적을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고기술력을 확보해야 하겠다.

셋째는 경영의 세계화를 도모해야 한다.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은 세계를 둘러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이다.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데 절대 기여를 했다.

세계화의 의미는 국경 개념이 희박해지는 국가간의 교류에서 부딪혀질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품질, 서비스, 가격만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문화, 종교, 정치, 역사 등 모든 부문에서 상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토착화 경영만이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카멜리온 처럼 상황에 따라 변신할 수 있는 능력과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른다는 융통성 있고 유연한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년에 예상되는 원화 절상, 국제원자재 가격인상, 가격파괴의 확산으로 요구되는 제품판매 가격의 인하, 금리상승 등 경영여건을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도 WTO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보다 가벼운 짐은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영의 3D를 기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헤쳐나갈 때에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지리라 고 확신한다.

탱크주의의 세계화에 주력



배순훈/ 본회 비상근 부회장
대우전자(주) 사장

'94년은 국내외에서 연이어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과 엄청난 환경변화로 인해 무척 힘든 한해였다.

대우전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2년째 추진하고 있는 탱크주의가 성과를 거두어 상당히 알찬 한해를 보낼 수 있었다.

입체냉장고 탱크가 히트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공기방울 세탁기는 세계적 일류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국내 기업중 가장 많은 특허출원 실적을 기록했다.

베트남과 폴란드에 종합 가전단지들을 건설하는 등 전세계 주요지역을 망라하는 30여개의 현지 생산 및 판매망을 구축했다.

'95 乙亥年 새해에는 국내에서 확고한 기반구축에 성공한 탱크주의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2000년대를 향한 미래형 기업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우전자의 '95년 매출 목표는 '94년 2조 6,000억원 보다 35% 늘어난 3조 5,000억원으로 이중 내수가 1조 2,000억, 수출이 2조 3,000억원이다.

임팩트 TV, 다이아몬드 VCR의 지속적인 수출호조와 공기방울 세

탁기 및 입체냉장고 탱크의 대폭적인 신규수출 증대가 예상돼 특히 수출을 대폭 늘려 잡았다.

그러나 2000년대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순한 외형 성장보다 질적인 내실화에 더욱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 대우전자의 기본 방침이다.

정보화시대가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면서 멀티미디어 등 미래첨단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자업계의 경우 멀티미디어 사업에 다투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 사업에 치중하든 시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우수한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

앞으로 시장이 형성될 멀티미디어 제품도 기존제품과 마찬가지로 결국 탱크주의로 만든 제품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다.

대우전자는 2000년대 기존 주력 제품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공급회사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성능향상 및 품질개선에 주력하면서 첨단제품에도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해 연구개발비를 지난해 보다 73% 늘려 2,6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와함께 현재 30여개에 달하는 해외 생산기지와 판매거점을 더욱 확대하고 현지 마케팅 전략을 강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일류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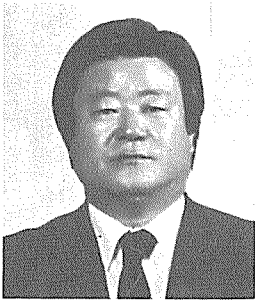
WTO체제가 본격 출범하는 새해 부터는 전세계적으로 생존을 위한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으로 펼쳐질 무한경쟁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화합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국내업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다행스럽다.

대우전자는 지난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보람의 일터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새해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종업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편안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더욱 바람직한 노사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계동/ 본회 비상근 부회장
동형전선(주) 사장

기업생존전략으로서의 세계화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해 전자 공업인 및 유관기관 여러분의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경제는 엔고 등에 힘입어 수출부문의 주도, 외형적으로는 고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 원화의 평가절상, 90년 이래 가장 두드러진 임금상승세 등이 기업경영상의 위협요소로 작용, 경영실적의 부진 및 재정상태의 악화로 대량부도, 도산사태를 유발 하였으며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95년도도 지난 해에 이어 고도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요증대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원화 평가절상이 가속화, '95년말에는 770원 까지 전망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95년 1월 1일부터 WTO의 출범으로 시장개방의 확대와 함께 경쟁의 심화가 가속화되어 국내외의 시장구분이 없는 가운데 선진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체제로의

돌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듯 국내외의 기업환경이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세계화 전략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세계화에 있어서 치열한 경제전쟁을 통해서 살아 남는 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나가 과제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국내의 정책, 제도 및 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화 내각을 출범시켰으며 정부조직도 대폭적으로 손질 한바 있다.

정부가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 우리의 기업들도 종래의 정부 의존체질에서 하루빨리 탈피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또한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활동을 세계차원으로 확대하는 세계화 전략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전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및 기술을 찾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GR은 이미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

해외부문의 인력 강화, 해외본사제도 등을 속속 추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도 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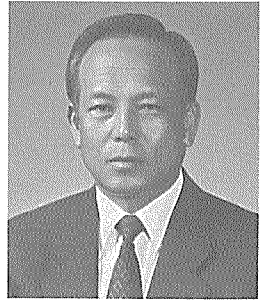
결국 우리나라나 기업이 살아남는 길은 세계화와 경쟁력 제고에 있다 하겠으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돌파구를 찾아서 기업 스스로의 힘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겠다.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하려면 기업이 지닌 기술면에서의 혁신, 관리면에서의 혁신, 시장개척력의 제고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하겠다.

또한 고객중중과 고객만족 추구의 정착, 또 우리본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적당주의 의식을 떨쳐 버려야 하겠고 거래 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 국제인력 또한 양성하여야겠다.

현재의 상황을 결코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인식, 능동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역량을 보일 것으로 믿으며 끝으로 금년 한해 정부유관기관 및 우리 전자공업인 모두가 밝고 활기차고 보람된 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초우량기업 기반 구축의 해



김주용/ 본회 비상근 부회장
현대전자산업(주)

돌이켜 보면 지난 갑술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국내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우리를 경악케 하였으며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역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 무역환경도 급변하여 NAFTA 및 EU로 대변되는 블록화와 WTO체제라는 개방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내 전자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특히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도 국내 경기는 지난해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전자산업도 지난해 보다는 다소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화의 절상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와 남미 후발 개도국의 추격이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도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우리의 안방인 국내시장에서 국내 업체를 거세게 몰아 붙여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의 의미를 실감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적

절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무한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출 중심인 국내 전자산업의 특성상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면 무한한 시장 기회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4년에 현대전자는 전임직원들이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당초 설정한 경영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며 세계적인 HDD 제조업체인 MAXTOR사와 AT & T GIS의 반도체 비메모리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선진 기술과 Marketing 관련 Knowhow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95년의 매출목표를 전년대비 50% 증가한 3조 500억으로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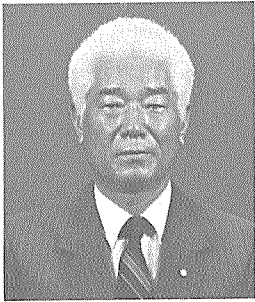
부문별로는 반도체 부문이 16M DRAM의 매출에 힘입어 2조 1,300억 원, 정보·산전부문이 CDMA 시스템과 단말기 매출이 본격화되고 멀티미디어 관련제품과 통신기기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9,200억원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전체 매출의 70%인 28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의 현대'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출의 35%인 1조 6,000억 원을 각 부문에 투자할 것이다. 16/64M DRAM TFT LCD 양산을 위한 신공장 건설 등 반도체 부문에 1조 700억 원, CDMA 시스템과 단말기,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Subsystem 제작을 위한 생산설비 투자 등 정보·산전부문에 800억 원, Green Round에 대비한 환경 및 품질부문 등 간접부문에 1,1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기술의 확보에 있음을 인지하고 매출의 12%에 해당하는 3,500억 원을 연구 개발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5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95년을 '세계적인 초우량기업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세계화·현지화의 강화', '사업본부별 자립기반의 강화', '신규 주력제품의 집중 육성', '최고 품질에 의한 고객만족'을 세부 경영방침으로 결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9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자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올 한해도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TOP”이 변하면 회사가 변한다

이기룡/ 본회 비상근 이사
고려전기(주) 사장

지난 한해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8%에 가까운 높은 성장을 이루었고, 올해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하니 매우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세계화로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기업은 앞으로의 국경없는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 전력 투구해야 하겠지만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제도와 관행의 수정 정비 뿐만 아니라 사원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TOP” 스스로가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전인차 역할을 다 할 때 경쟁력 강화라는 당면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다. 모든것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이지만, 우선 현상의 개선부터 착실하게 전개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새해 설계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율적 직장 풍토의 조성이다.

사원 각자가 권한과 책임을 심분 발휘하여 신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적 직장 풍토를 조

성하기 위하여 상식과 도리에 합당한 행동은 모두로 부터 받아들여 지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은 비난 받거나 거절 당하게 하는 무언(無言)의 행동규범이 사원 상호간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 현장 경영의 실천이다.

제조업 예찬론자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마키노 노부로”는 미·일 비교에서 미국 현장 근로자 끼리는 “우리”라고 부르고, 화이트 칼라는 “그들”이라 부른다. 일본에서는 모두가 “우리”라고 칭하며 한국은 미국을 닮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것은 일본식 경영 방식인 “현장중심주의”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영 등지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경우 불량률이 그들보다 훨씬 낮다는 데에 이 말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현장 경영을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TOP”자신부터 생산·영업 현장에 들려 직접 사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문제를 찾아 그 해결을 지도하고 실무 교육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현장 업무 개선을 촉진해야 할 줄 안다.

셋째, 고객중심 사상의 확립이

다.

국내 모회사의 고객이 텔레비전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 요청을 하였던 바, 텔레비전의 수리 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품까지도 무상으로 점검을 해주고 부품 실비를 받아 돌아갔는데 얼마 후 그 회사의 한 여직원으로부터 비용의 내역과 수리결과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전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고장 수리품에 대한 서비스 품질의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고객중심 사상을 실천하는 바른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보화 시대의 대비이다.

피라미드형 기업조직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보고의 다단계계를 단순화하고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사원의 능력과 책임감을 높여가는 한편, 부서간의 벽을 제거하여 업무의 정류화를 기하며 정보 시스템을 조기에 확립하여 정보가 공유·공용 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화는 엄연한 역사의 흐름이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벗어나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변화가 우리에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작용할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대응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전세계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우리로서는 개방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TOP”이 변하면 회사가 변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전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해에 우리 전자업계는 기대 이상의 호황 속에서 매우 바쁘고 벅차게 달려온 한해였다.

금년도에도 우리 기업을 둘러싼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몰려 올 것인지 이에 대한 대응자세를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기업이 처한 환경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세계 무역질서를 관장해 왔던 GATT체제에서 벗어나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WTO체제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신경제 질서인 것이다.

특히 무역에 있어서는 규제 중심에서 해제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국가간에 국경이 사라지게 되며, 이는 소위 세계경제의 Globalization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세계의 경제권이 다수의 Bloc으로 나뉘어지는 Bloc화의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WTO체제가 강화 될수록 국가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의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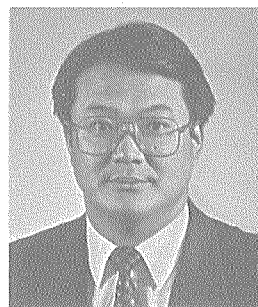
현재 EU, NAFTA, APEC 등 Bloc의 수는 점차 늘고 있고, 자국 또는 동일 지역내의 산업보호와 이익 추구가 새로운 관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첨단화되어 그 발전 속도는 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각 국가마다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의 전달 채널을 고도화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도전의식

변동준 / 본회 비상근 이사
삼영전자공업(주) 사장



하고 이를 기초로 21세기의 고도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Multimedia 산업에 사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Multimedia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의 모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변화의 조류는 우리에게 숨쉴 수 없이 밀려들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맞서는 과감한 도전 의식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전략도 극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기 위한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체제장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기업의 경영전략도 이제는 나라 안에서 뿐만이 아닌, 전세계의 시장을 상대로 펼쳐져야만 한다.

즉,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세계적인 일류기업들은 그 기술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고, 중국 및 동남아 개발국의 추격이 우리의 위치를 넘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선진기업을 뒤따라가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술에서 앞서가며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약하는 도전의식을 갖고 이에 따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저희 삼영전자도 지난 26년간 핵심 전자부품인 전해 Condenser를 생산해 오면서, 그 기술수준의 세계최고화를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동종업계에서는 국내제일의 시장점유와 품질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세계시장에서도 품질과 납기, 가격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금년도에는 전자산업의 기술수준은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자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기업인과 근로자가 합심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며, 95년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글로벌 경영으로 혁신의 새물결 일으켜야...

엄길용 / 본회 비상근 이사
오리온전기(주)사장

올해엔 새해를 맞아 전자·정보 산업계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특히 산업현장과 수출일선에서 땀 흘리는 실무 종사원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최근의 국제사회는 WTO체제 출범에 따라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해 가고 있다.

세계경제가 극심한 경쟁논리에 지배되고, 국내 기업들은 이제 경쟁의 냉엄한 법칙 속에서 살아남길 요구받고 있다. 세계경제의 가장 근본적 흐름이 국가·기업간 경쟁의 심화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년에는 세계경제의 이러한 글로벌(세계)화 흐름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국가나 기업이 '생산·판매·기술'의 범위를 한층 넓게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자국시장을 배경으로 이미 다국적화를 추구한 역사가 30년이 넘는다.

유럽의 기업들도 인구 3억이 넘는 시장을 발판으로 세계시장 경쟁에 우선권을 쥐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80년대 이후 생산기지의 대폭적인 동남아 이

전을 계기로 일본·동남아를 하나의 경쟁단위로 엮어놓고 있다.

지난 60년대와 70대에 걸쳐 세계 선진기업들의 하청기지 역할로 성장해 왔던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생산은 국내에 집중하면서 수출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생산기지외 판매시장의 개념을 지금보다 훨씬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점령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은 물론 많지가 않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 근처에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 지역과 중국의 일부지역, 러시아 극동 등 동북아 지역이 바로 그렇다. 우리나라는 역사·문화적으로 이들 지역 진출에 필요한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글로벌화는 기술개발 분야에도 절실히 요청된다. 50년대 진공관 라디오 생산에서 비롯된 국내 전자 산업은 지난 수십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그 성장의 뒷면은 결코 밝지가 않다. 가전분야의 조립산업 위주로 성장한 국내 전자 산업은 정보통신 및 핵심부품분야에서 극심한 불균형과 기술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부품분야는 원천기술 부족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전자·정보산업 경쟁력을 위한 기술개발의 글로벌화는 선진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현지에, 그것도 초기부터 뛰어드는 방법이 공격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외국에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기술인력과 내국인 기술인력을 조합한 개발팀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고급 원천기술을 확보해 국내에 들여 오는 것이다.

이미 국내 일부 선진기업들은 현지 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술개발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리온전기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의 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 해외 연구센터를 설립·연결하는 광역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제몫을 차지하려면 개인, 기업, 국가, 지역 모두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업이 정신과 도전정신이다. 결국 의식의 글로벌화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셈이다.

'95년에는 부디 좋은 아이디어와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전자·정보산업계에 더욱 새롭고 역동적인 혁신물결을 일으켜 추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한해는 그동안의 불황을 벗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열심히 땀 한해였다.

특히, 전자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되어 타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편,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 신규 사업분야가 급부상해 전자산업내 전반적인 산업개편 운운할 정도로 변화가 극심한 한해이기도 했다. 이같은 양상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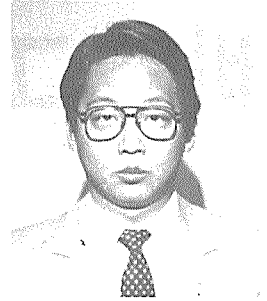
지난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국전자는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기 위해 올 한해 어느 기업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자 한다.

먼저, 경영방침을 “시간자원 재인식의 해”로 설정하여 경영 전반에 시간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전자정보 기술의 발전은 과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고 있다. 그만큼 변화의 폭이 크고 빠르다. 한때 초관리 운동, 시테크 운동이 각 기업들을 휩쓴 바 있다. 시간을 아껴 쓰고 시간을 앞당겨 고객에 대응하자는 이 일련의 운동들을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였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간자원 재인식”은 이같은 기존 시간관련 운동의 개념을 도입하되, 시간을 하나의 경영자원으로써 인식하여 시간 자원을 최우위에 두고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Speedup을 통한 고객만족, 신속한 의사결정 등으로 경영성공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추구하며 그동안의 경영

시간자원 재인식의 해

곽정소 / 본회 비상근 이사
한국전자(주)사장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수출 시장인 동남아 지역의 판매 신장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태국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방콕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이 지역의 판매 및 생산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장일로에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1차 단계로 현지 생산 거점을 신설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고부가가치의 주문형 반도체 분야의 제품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관련 핵심 전자부품 사업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향후 사업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자기기 부문에서는 내수 판매 기반을 구축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여 현재의 저조한 실적을 탈피하고 향후 성장 가능한 사업 부문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과 함께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제품 경쟁력 향상에 기여케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전자악기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기술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아래 올해 매출액은 작년 대비 19% 성장한 3,480억원, 경상이익은 118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투자계획은 창사이래 최대 규모인 700억원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각 하부 조직에서 추진되어온 신규사업 및 신상품 개발을 보다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사(全社) 차원의 조직을 마련하여 미래 유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망의 2000년대를 준비하는 중장기 계획을 재정비하여 21세기 비전 및 사업전개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올해 자체 사옥 입주를 계기로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는 인재육성 및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경영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전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한해가 되고자 한다.